

광주시향의 50년 족적… 정기연주회 400회 맞았다

1976년 창단 이후 시민들에 클래식적 진수를 선보여온 광주시립교향악단이 400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향은 광주시민교향악단이 전신으로, 지난 1969년 고(故) 장신덕 교수가 지역 음악인 30여 명을 모아 창단했다. 이후 1976년 7월 광주시가 시민교향악단을 토대로 광주시립교향악단을 공식 출범했다.

초대 상임지휘자 장신덕을 시작으로 금노상, 구자범, 김홍재, 홍석원 등 국내 주요 지휘자들이 지휘봉을 이어받았다.

광주시향은 신년음악회와 협연 무대는 물론이고,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지역 대표 클래식단체로 자리매김했다. 클래식 애호가들을 위한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클래식 입문자를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GSO 오티움(otium) 콘서트’, 연주자들의 호흡과 표현력이 돋보이는 ‘체임버 시리즈’,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음악회 ‘키즈 클래식’, 기존 음

14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대

프로코피예프·쇼스타코비치 명곡 선율 선사

예술적 정체성 탐색·희망 메시지 널리 전파

악회 이미지를 탈피해 다양한 시도를 펼치는 ‘특별 연주회’ 등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무대로 시민들과 만났다.

정기연주회 작품을 주제로 예술감독과 관객이 직접 소통하는 ‘콘서트 토크’와 차세대 연주자 발굴·육성을 위한 초청 ‘마스터 클래스’, 광주·전남 학교 및 시설 등 문화소의 계층에게 클래식을 설명하고 들려주는 ‘찾아가는 예술단’ 등도 교육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향은 올해 1월 취임한 제14대 상임지휘자 이병욱 예술감독을 포함해 총 82명으로 구성돼 있다. 바이올린 27명, 비올라 10명, 첼로 8명, 더블베이스 6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음악에 대한 열정과 감성을 겸비한 단원들의 연주력을 기반으로, 폴 루이스(Paul Lewis), 스티븐 허프(Stephen Hough)와 케빈 케너(Kevin Kenner), 알렉세이 볼로딘(Alexei Volodin), 에마누엘 파위(Emmanuel Pahud), 안

젤라 게오르규(Angela Gheorghiu), 백건우, 조성진, 손열음, 선우예린, 임윤찬 등 세계적 연주자들과의 협연으로 오케스트라의 진수를 선사했다. 특히 반 클라이번 우승자 임윤찬과 ‘베토벤, 윤이상, 바버’ 실황 앨범을 세계적 권위의 클래식 레이블 ‘도이지 그라모폰(DG)’에서 발매했다. 이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플래티넘을 달성하며 전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도쿄예술극장(Tokyo Metropolitan Theatre), 체코 프라하 스메타나홀(Praha Smetana Hall), 오스트리아 린츠 브루크너하우스(Linz Brucknerhaus), 미국 샌 안토니오 토빈 공연예술센터, 휴스턴 켈튼을 등 해외의 주요 도시에서의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며 대한민국 클래식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광주시향의 이번 400회 무대는 창단 이래 지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서 예술적 성취를 거듭해온 여정의 한가운데에서 정기연주회라는 기념비적 의미를 지닌다.

‘혁명가들’이라는 타이틀은 시대와 맞서는 예술가의 태도를 상징한다.

첫 곡은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 장식한다. 1913년 초연 당시 격렬한 리듬과 이질적인 화성, 장대한 카덴차가 이어지며 기존 낭만 협주곡의 문법을 과감히 해체해 새로운 음악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피아니스트의 기교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동시에, 젊음의 패기와 실험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게 특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김규연이 협연자로 나서 무대 위 작품의 폭발적 에너지를 풀어낸다.

김규연은 지난 박하우영 영 아티스트 국제 콩쿠르 우승, 더블린 국제 콩쿠르 준우승을 비롯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클리블랜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바 있다. 2017년 카네기홀 리사이틀 데뷔 무대를 통해 평단으로부터 ‘자연스러운 음악적 흐름을 가진 연주자’라는 호평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학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어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이 울려 퍼진다. 이 작품은 20세기 음악사에서 가장 뜨겁게 회자되는 작품 중 하나다. 표면적으로는 소련 체제에 순응하는 듯하지만, 곳곳에 삽입된 비극적 정서와 절규에는 체제와의 긴장 그리고 예술가의 내적 고뇌가 녹아있다.

특히 4악장 ‘승리의 행진’은 고통을 뚫고 나아가

려는 인간 정신의 몸부림으로 해석된다.

광주시향은 이번 무대가 지난 400회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여정을 향한 선언이라는 설명이다. 400회 정기연주회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지난 예술적 정체성과 미래를 밝히는 햇빛이자 앞으로 또 다른 400회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공연의 지휘를 맡은 이병욱 예술감독은 “두 혁명가의 음악은 체제의 억압 속에서 예술로 말하고, 저항하고 살아남았다”며 “단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깊이 연결해 예술의 혁신과 저항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연은 14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리며, 초등학교생부터 입장할 수 있다. 입장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지휘자 이병욱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원들.



피아니스트 김규연

신진예술가들 ‘불완전한 세상’ 조망한 작품 만나볼까

청년예술센터 입주작가 발표전
14~23일…6명 작가 30점 출품

신진예술가들의 패기가 넘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한편, 불완전한 세상살이의 단면을 투영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2025년 청년예술센터 입주예술가들의 결과 발표전을 14일부터 23일까지 청년예술센터(구 청년예술인지원센터)에서 ‘불완전한 완성’이라는 주제로 갖는다. 출품작은 평면(회화), 입체(조각·설치) 등 30여점.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센터는 지역 신진예술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2016년 개관, 2017년 1월 정식 활동을 시작해 2024년까지 총 84인(팀)의 예술가들이 거쳐 갔다. 올해는 6명의 청년예술가들이 입주,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시립미술관은 결과발표 전시에 앞서 지난 9월과 10월, 작가와 비평가 간 1대 1 현장 비평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입주작가들로 하여금 작업세계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게 했다.

참여작가로는 고예진 공윤정 김태양 문진성 박우인 최찬씨 등 6명이다. 김태양 작가는 목흥균 학예연구사(G.MAP)가, 최찬 작가는 문화영 대표(예술공간 집)가, 박우인 작가는 박혜강 디렉터



박우인 작 ‘불완전한 영역’

(예술공간 돈키호테)가, 문진성 작가는 백종욱 소장(미술생태연구소)이, 고예진 작가는 양종룡 초빙교수(조선대)가, 공윤정 작가는 이은하 대표(독립큐레이터·콜라티브오피스)가 각각 짝을 이뤄 젊은 작가들에 도움을 준다.

이번 결과발표전은 준비 과정에서 입주작가들 간 협의를 통해 ‘불완전한 완성’이라는 주제를 도출했으며, 주제는 출발선에 있는 신진작가들의 작업적 완성을 향한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불안함

을 담고 있다.

작가들은 “불완전한 완성이란 완벽함의 부정이 아니라, 완벽함의 재해석이다. 완전함이 목표가 아닌 과정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진실에 닿는다. 불안 속에서 흔들리며, 그 흔들림 속에서만 스스로를 완성해 간다”고 규정한다.

고예진 작가는 실제 풍경에 본인의 감정을 이입한 작품을 출품. 삶의 단편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공윤정 작가는 ‘불안’의 정서를 조형적 언어로 재구성하는 개념 작업을 보여준다. 또 김태양 작가는 인터랙션에 기반한 키네틱 미디어 작업을 선보이며, 문진성 작가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회화로 펼쳐낸다. 박우인 작가는 수많은 이미지가 빠르고 쉽게 생성되고 복제되는 시대 속에서 ‘폭력성과 고통’을 주요 테마로 욕망과 허무 등 인간의 허약함을 회화로 제시하고 있으며, 최찬 작가는 감정의 모순을 관찰하고, 위인의 정서를 기록하는 작업을 지속한다.

윤익 관장은 “입주작가들은 비슷한 연령대로 동시대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각자의 생각을 가진 독립된 개체”라며 “이번 레지던시 활동기간 동안 나와 다른 생각과 만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것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예술세계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제9기 입주작가들의 키아프와 프리즈 답사 모습.

파묘 촬영지서 만나는 조선왕실 기록 미학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유류공간을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으로 채우는 특별전을 선보인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파묘’의 촬영지로 알려진 ACC 통로에서 펼쳐지는 조선 궁중의 예술과 기록 문화를 재조명하는 전시여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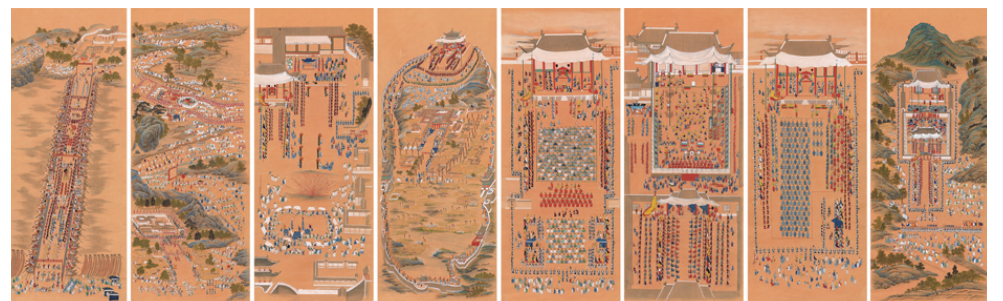
‘궁중 기록화, 맥을 잇다’라는 타이틀로 이뤄진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전시5관(B2) 옆 통로에서 열린다. 162cm×가로 592cm, 8첩), ‘진찬도’(세로 181cm×가로 368cm, 8첩) 등 궁중 기록화 7점을 만날 수 있다.

작품은 조선시대 궁중의 의례, 군사 훈련, 연회, 행렬 등 다양한 장면을 섬세한 필치와 화려한 색채로 담아내 전통 기록화의 예술성과 역사적 가치를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수군조련도’는 조선시대 삼도수군이 통영에서 합동훈련을 한 장면을 묘사한 대작이다. 실제 훈련보다 완전한 진형을 표현한 개념 기록화로, 일물 배치와 병선의 배열 등 군사 교본인 ‘병학통’과 일치하며 실물과 비교해도 사실성이 높다. ‘수원화성능행도’는 정조 20년(1795년) 당시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아버지 사도세자의 현릉원 행차를 그린 작품이다. 총 8폭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정조의 효심과 왕권 강화, 민심의 화합 등 군주의 이상적 통치 철학을 회화로 구현했다고 평가된다.

‘수군조련도’(세로 200cm×가로 552cm, 10첩)를 비롯해 ‘수원화성능행도’(세로 205cm×가로 608cm, 8첩), ‘곽분향행략도’(세로 182cm×가로 310cm, 10첩), ‘요지연도’(세로 183cm×가로 360cm, 8첩), ‘태평성시도’(세로 185cm×가로 472cm, 8첩), ‘평양감사행렬도’(세로

김상국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오랜 시간 우리 전통예술의 맥을 지켜온 작가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창·제작 기능을 갖춘 ACC와 함께 성장하며 한국 전통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수원화성능행도’